

# 어린이 사역 보고서

## Children's Ministries Report \* 2025년 4월 기준





## 감사의 글

자연재해, 극심한 빈곤, 기근, 전쟁 속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는 바로 어린이입니다.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린이는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마리안퍼스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퍼스 어린이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참여로 2024년에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의료 지원, 정서적 치유를 위한 안전한 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 누가복음 18장 16절 (개역개정)

# 배고픈 어린이에게 영양을

전 세계 5세 이하 어린이의 약 33%가 영양실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특히 2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에서는 어린이 영양실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아홉 자녀 중 두 명을 내전으로 잃고, 수단 중부 코르도판(Kordofan) 지역으로 피난 온 다라(Dara, 가명)는 자녀들과 함께 나뭇잎과 수액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 살 쌍둥이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사마리안 퍼스의 구호물자가 코르도판에 도착하면서, 다라의 자녀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식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라처럼 내전으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에게 식량 지원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안도감을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 사역 현황



**134,433명**

영양실조 치료를 받은 어린이 수



**60,667명**

영양 교육을 받은 사람 수



**350만 명**

식량 지원을 받은 사람 수



수단,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던 아이에게 치료식을 먹고 있는 엄마



사마리안퍼스는 어린이의 영양실조 단계에 맞는 치료와 건강한 영양 상태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생명이 위험한 어린이:** F-75와 F-100이라는 특수 영양식을 사용해 안정시킵니다.
- **중증 영양실조로 외래 치료를 받은 어린이:** '플럼피넛'이나 '플럼피십'이라는, 땅콩버터, 비타민, 미네랄 혼합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영양이 풍부한 고열량 치료식을 몇 달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회복을 돕습니다.
- **영양실조 중등도(moderate) 단계 어린이:** 보조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집에서 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불어, 기관 협력 및 부모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역 파트너와 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이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족 전체에게 영양 교육을 실시해서 영양실조를 악화시키는 말라리아, 기생충 감염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취약 가정에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와 비타민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아래의 6개 국가에서 어린이 영양실조 치료 사역을 진행합니다.**

- 콩고 민주 공화국,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니제르, 남수단, 베트남



구순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라이베리아, 구순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아이



콜롬비아, 클리닉에서 산전 진료를 받고 있는 임산부

## 아픈 어린이에게 치료를



**2,174건**

2011년 - 2024년  
총 수술 건수

**310건**

2024년 연간 수술 건수

### 구순구개열 수술 사역

전 세계적으로 약 700명 중 1명의 어린이가 구순구개열(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얼굴에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은 젖을 빨기 어려워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고립을 당할 뿐 아니라, 부모에게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남수단의 엘리자베스(Elizabeth)는 출산을 한 후 남자 친구와 결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 친구는 병원에서 막 태어난 딸 조세핀(Josephine)이 구순열(윗입술이 제대로 붙지 않고 갈라진 상태)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자 친구의 행방은 그의 가족을 통해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절망한 엘리자베스는 조세핀의 아랍어 이름을 '버림받은 자'라고 지었습니다.

사마리안퍼스 구순구개열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였던 이웃 주민 존(John)은 엘리자베스에게 무료 수술 프로그램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존은 조세핀이 수술을 받을 만큼 건강을 회복하도록 영양 상담을 도왔고, 조세핀은 생후 9개월에 마침내 수술을 받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조세핀의 수술과 회복 과정 중 복음을 전해 들은 엘리자베스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세핀의 아랍어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었습니다.

사마리안퍼스는 의료 장비와 수술 도구를 모두 직접 운반해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어린이는 외딴 마을에서 수도로 이동해, 수술 기간에 부모와 함께 현지 사역 단체의 돌봄을 받습니다. 어린이들이 숙련된 의료진에게 수술받고 회복하는 동안, 사역자들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엘리자베스의 간증처럼, 이 사역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2025년에는 아래의 4개 국가에서 구순구개열 수술 약 380건을 진행합니다.**

- 콩고 민주 공화국, 남수단, 보안상 비공개 2개국



### 엄마와 아이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역

아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임신 기간 중 임산부의 건강 체크와 영양 섭취, 정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455,509건**

외래 진료 건수

엘 살바도르에 사는 23살 루시아(Lucia, 가명)는 임신한 걸 알게 된 후 한동안 낙태를 고민했습니다. 자궁 파열이 심한 상태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와 산모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국경 너머 콜롬비아의 사마리안퍼스 클리닉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콜롬비아 쿠쿠타(Cúcuta) 지역의 클리닉에 방문한 루시아는 필요한 산전 진료와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저귀 가방과 아기용품, 심리적 상담 등의 지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루시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한때 아기를 포기할 뻔했던 루시아는 현재 임신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아기와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퍼스는 클리닉을 운영할 뿐 아니라 지역 리더와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교육과 신생아 위생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고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미신을 극복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를 비롯해 남미, 베트남 등지에서 수천 명의 여성이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아래의 10개 국가에서 엄마와 아이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역을 진행합니다.**

- 콜롬비아, 콩고 민주 공화국,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니제르, 남수단, 수단, 베트남, 보안상 비공개 2개국



**50명**

CHP를 통해 수술 받은 어린이 수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CHP, Children's Heart Project)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와 보호자를 초청해, 협력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하도록 돕는 의료 사역입니다. 어린이는 수술 후, 돌봄 교회와 돌봄 가정에서 회복하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역은, 선교 대상이 직접 우리 교회와 가정으로 찾아오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사역이 2023년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4년까지 총 14명의 몽골 아이들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어렵게 딸 손드코(Sondko)를 얻은 졸자르갈(Zoljargal)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몽골 시내의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저체중으로 인해 수술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답답함과 절망 속에서 지내던 중, 그녀는 사마리안퍼스의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지 협력 병원에서 손드코의 건강 상태를 진단받고, 희망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천세종병원에서 손드코가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동안, 졸자르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천 드림교회의 돌봄 가정이 그녀와 손드코 곁을 지키며 함께 기도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손드코의 퇴원 후에 돌봄 가정에서 머물며 회복하던 중, 졸자르갈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2025년에는 아래 3개 국가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 사역을 진행합니다.**

- 볼리비아, 몽골, 우간다



**24명**

CHP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이와 보호자 수

\* 2024년, 한국 지부를 포함한 글로벌 통계



한국에 와서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몽골 어린이 바이라(좌), 손드코(우)



2025년 3월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은 아노징(좌, 6세)과 후슬렝(우, 10세)



회복 후 경복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후슬렝(좌)과 아노징(우)



라이베리아, 휠체어를 제공받은 어린이

## 취약 계층 어린이에게 희망을



**188명**

자립 생활 기술을 배우고, 직업 훈련을 받은 베트남 시각 장애인 수

### 장애 아동 사역

개발도상국의 장애 아동들은 부족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편견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나 보조기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마리안퍼스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돌봄 프로젝트를 통해 재건 수술, 치료, 특수 시설은 물론, 휠체어, 목발, 안경 등 보조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특수 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외곽에서 자란 하이안(Hai Anh)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시각 장애로 인해 통합 교육이 가능한 학교에 진학했지만, 학비 부담으로 중도 포기를 고민하던 중 사마리안퍼스를 만나 장학금을 지원받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하이안은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안퍼스는 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한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베트남에서 열린 'IGNITE 캠프'에는 시각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71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술은 물론, 사회성과 직업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으며, 멘토들과 함께 사랑, 우정, 협력 등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5년에는 아래의 5개 국가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사역을 진행합니다.**

- 케냐, 라이베리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보안상 비공개 1개국

### 위기 어린이를 위한 보금자리 사역



**15개국**

취약 계층 어린이 사역을 진행한 국가 수

사마리안퍼스는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고아가 된 어린이들, 가정이나 지역 사회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소년병으로 동원되었던 어린이를 보호합니다. 또한 인신매매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육원과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교회와 협력해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가능할 경우 지역에 뿌리내린 사역 단체들과 협력하여 이들이 더 많은 어린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케냐, 해피라이프 보육원**

'해피라이프 보육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케냐의 기독교 사역 기



베트남, IGNITE 캠프에 참여하는 시각 장애인들



베트남, IGNITE 캠프



케냐, 해피라이프 보육원의 조나단

관입니다. 사마리안퍼스는 이 기관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보금자리와 음식, 교육을 제공합니다.

조나단(Jonathan)은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버려졌지만, 지난 16년 동안 이 보육원에서 사랑과 보호 속에 안전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신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받았고, 말더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언어 치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아래의 5개 국가에서 위기 아동을 위한 보금자리 사역을 진행합니다.**  
**- 콩고 민주 공화국, 라이베리아, 베트남, 보안상 비공개 2개국**

### 아이티, 그레타 홈 & 아카데미

오랜 정치 불안과 자연재해, 경제 위기, 강단의 폭력과 치안 부재로 인해 아이티는 심각한 사회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의 43%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 어린이의 삶은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2012년 레오간(Léogâne) 지역에 설립된 '그레타 홈'은 40명의 어린이에게 사랑과 존중이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함께 운영하는 '그레타 아카데미'는 200명의 지역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그레타 홈에 거주하던 어린이들은 불안정한 사회 상황으로 인해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그레타 아카데미에는 여전히 약 200명의 어린이가 꾸준히 등교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그레타 홈



그레타 아카데미의 수업 시간



**753명**

에티오피아 내 안전 공간을 통해 보호받은 어린이 수

### 트라우마를 겪은 어린이를 위한 정서적 치유·돌봄 사역

내전으로 부모, 형제, 자매를 잃고, 아동 노동과 같은 착취의 위험에 내몰리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정서적 안정의 회복을 돕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헨옥(Henok, 가명)은 6살 되던 해 내전으로 아버지와 형, 누나를 잃고 어머니와 다른 지역으로 탈출했습니다. 난민캠프에서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10살이 될 때까지 과거에 겪은 끔찍



에티오피아, 안전한 공간에서 웃음을 되찾은 어린이들

한 폭력의 기억에 시달리며, 반복적으로 악몽을 꾸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헨옥은 사마리안퍼스의 에티오피아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인 '세이프 헤이븐(Safe Havens)'을 통해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으려 하고, 다른 어린이들과 자주 다투기도 했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활발히 어울리며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안퍼스는 전쟁과 폭력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에티오피아 내 '세이프 헤이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에게는 어린이의 정서적 필요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며, 어린이와 보호자에게는 따뜻한 식사와 상담을 지원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안전한 공간에서 미술, 스포츠,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놀고, 탐색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아래의 2개 국가에서 위기 어린이 치유·돌봄 사역을 진행합니다.**  
**- 콩고 민주 공화국, 라이베리아**

# 어린이에게 복음을



**1,192만 개 이상**

2024년 전달한 선물상자



**90개국**

2024년 선물상자를 전달한 나라

\*2024년, 한국 지부를 포함한 글로벌 통계

## OCC선물상자 사역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OCC, Operation Christmas Child) 선물상자 사역은 1993년, 보스니아 전쟁 중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어린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했던 이 사역은, 이제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이 직접 채우거나 후원금으로 마련한 OCC선물상자를 미전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선물상자를 받은 현지의 협력 교회는 지역 어린이들을 전도 집회에 초대합니다. 전도 집회에 초대되어 온 어린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선물상자를 받습니다.

각 어린이가 원했던 선물, 필요했던 물건이 들어있는 OCC선물상자는 모든 마음의 소리를 듣고 세심히 살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훌륭한 도구입니다.



**5천 6백만 명 이상**

제자 양육 과정에 등록된 어린이 수



**99개**

제자 양육 교재가 번역된 언어 수



**30만 5천 명 이상**

훈련 받은 제자 양육 교사 수

\*2024년 글로벌 통계

## 어린이 제자 양육 사역, '가장 위대한 여정'

OCC선물상자를 받은 어린이 중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어린이는 '가장 위대한 여정'(TGJ, The Greatest Journey) 제자 양육 과정에 참여합니다.

제자 양육 과정인 '가장 위대한 여정'의 교재는 12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과는 '복음 알기'(하나님의 천지창조, 원죄,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사랑), 5-8과는 '복음 안의 성장'(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9-12과는 '복음을 전하기'(천국의 소망, 이웃 사랑,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위대한 여정' 교재는 각 지역의 언어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프로그램 종료 후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리드해야 하는지,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하며 어린이들은 졸업 선물로 모국어 신약성경을 받습니다.

2024년에는 5천 6백만여 명의 어린이가 '가장 위대한 여정'에 등록했고, 이 중 4천 1백만 명이 과정을 충실히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이 과정을 졸업한 어린이들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을 전파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졸업하는 어린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필리핀, 제자 양육을 받는 어린이들



에콰도르, 제자 양육 과정을 졸업하는 어린이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 고린도후서 2장 14절-16절 (개역개정)

###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2. 사마리안퍼스의 사역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전달되어, 어린이들의 삶의 환경이 실제로 나아지고, 영육이 건강하도록
3. 어린이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모는 전쟁과 갈등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도록

### 후원하기



빈곤 아동을 위한  
한 끼의 식사 지원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



사마리안퍼스가 준비하는  
OCC선물상자 후원



12과 제2 양육 과정



콜롬비아

Helping in Jesus' Name®

